

야! 이겼다...식당서도 거리서도 온통 환호·박수

호프집서 출구조사 지켜보던 시민들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왔다”

송정역대합실 승객들 “지역·세대 갈등 해소·지역균형 발전” 기대

광주·전남 지역민 표정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순간, 광주 시민들은 일제히 광주시가 떠나갈 듯 ‘와’ 소리를 내며 환호했다.

3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대의동의 한 호프집에 모여든 시민들은 숨을 죽이며 가계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1.7%로 1위로 나오자 시민들은 가계가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다. 시민들은 “이겼다”,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표방송을 함께 보기 위해 모인 광주지역 작가 6명은 맨 앞자리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즐겼다.

김현승(63·서구 풍암동)씨는 암울한 시간을 지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으며 감동한 모습을 보였다. 결과 발표 순간 지난 계엄 때부터 내란, 탄핵으로 국민이 고생한 일이 스쳐지나갔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광주와 비슷한 생각이었구나를 느꼈다”며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대통령이 제대로 이끌어 나가 주지 않았던 국력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경민(53·계림동)씨는 탄핵 집회와 금남로에서 파면 확정을 함께 봤던 지인들과 ‘뿔뿔이’를 하기 위해 호프집을 찾았다가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김씨와 박주란(여·50)씨 부부는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벅찬 마음을 내비쳤다.

김씨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지만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만족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활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결과가 다소 아쉽다는 이들도 있었다. 김정후(54·북구 용봉동)씨는 “두 번이나 탄핵으로 인해 투표를 다시 한 일이 슬프기도 하고 역사적 수치다”며 “내란과 탄핵 상황에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다른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18%가 넘는 부분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격차가 더 벌어질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더군다나 선거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과 개표 방송을 보기 위해 호프집을 찾은 이동훈(42·서울)씨도 “조금 더 압도적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씨는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대합실에서 는 기자 시간을 기다리던 시민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이 벽에 걸린 TV에 몰렸다.

일부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언론사 유튜브 생중계를 켜고 개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캐리어를 끌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승객들도 잠시 텔레비전 앞에 멈춰서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합실이 “어느 정도 예상했다”, “그럴 줄 알았다. 다행이다”는 반응으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덜 나왔다”는 불만을 하는 시민도, “경남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와 의외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날 서울에 사는 딸을 배웅하기 위해 송정역을 찾은 안미정(여·60)씨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고 정책을 맡겨볼 수 있다”며 “정치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과 실현 가능한 공약이 있다면 따라가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처럼 정치 성향이 뚜렷한 지역에서도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다 잠시 광주를 들렀다는 고영재(27)씨는 “전남 지역은 당연히 민주당이 강세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의외였다”며 “정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청년 정책을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 지역 간 갈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풀어 놓는 시민들도 있었다.

나주가 고향인 전금(57·경기도 광명시)씨는 “가족을 보러 내려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출구조사 결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웃었다.

전씨는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투표하고 내려왔다.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는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헛방이 날 정도로 답답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힘을 모은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본다”며 “아이들이 지러나는 세상은 독재 정치의 폐해가 없는 나라라면 좋겠고, 복지와 국방이 튼튼한 선진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50대 한승민씨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들의 기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새 정부는 특히 경제 회복에 반드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투표가 마감된 후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발표되자 광주시 동구 대의동 한 호프집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들이 3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전남도청 운선도홀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6·3 대선 개표방송 시청과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전국 최고 투표율 자랑스러워”...강 시장 “광주 날아 오를 것” 김 지사 “전남 새로운 도약”

광주시·전남도 시도민 개표 방송 시청

“전국 최고 투표율을 만들어준 광주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광주시는 3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함께 보는 개표 방송, 함께 맞는 새 정부’를 주제로 6·3 개표 방송 시청 행사를 진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등 시민 200여명은 출구조사 발표 전 긴장 가득한 표정으로 TV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들은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지 휴대전화나 시계를 초 단위로 보며 출구조사 발표를 기다렸다.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8시,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의 결과가 나오자 강 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쳤다. 어떤 이들의 눈기는 축축하게 젖었고, 어떤 이들은 연신 “어떡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들은 광주·전남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했다.

이번 대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 이찬희(20)씨는 “12·3 계엄으로 평화로운 일상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번 대선이 평화가 지속되고 안전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균형 발전, 지역 소외 등으로 광주의 지역 발전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광주가 직면한 과제를 국정 과제로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고, 광주가 본격적으로 날아올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광주는 AI 거점 도시를 표방하며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유치 등 AI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왔다. 새 정부가 AI 2단계 사업과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을 도와줘야 한다”며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노심초사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시민들께서 계엄을 막고 탄핵 때 응원봉을 들어줬다. 그 마지막 종결점으로 투표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청에서는 3일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민이 함께 방송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전남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83.6%)을 기록할 정도로 선

거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오후 7시께 도청 1층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시청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유관기관 단체장,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민들은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8시 정각 TV방송을 통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뒤틀린’ 호남에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면서 지역민들은 한껏 고양됐다. 이어 전남 지역의 최종 투표율이 83.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민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하루”라며 “자랑스러운 도민의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이 만들어진 감동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투표는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흔들리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동시에 전남의 미래를 향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어린 자녀의 손을 잡은 젊은 부부, 출근길에 들른 30대, 지방어를 짓고 나온 노인 등 도민들의 투표 참여 모습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인공지능, 바이오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희망,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담겨 있었다”며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염원이 투표를 통해 당당하게 전해졌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진도서 차량 바다 돌진, 일가족 3명 살해한 40대 체포

바다서 홀로 빠져나와 광주로 도주 “채무 감당하기 힘들어 범행” 진술

가족들을 차량에 태운 채 진도 앞바다로 뛰어든 A씨가 홀로 빠져나와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개인적인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결국 직접적 채무 관계가 없는 두 아들과 부인만 목숨을 잃었다.

광주북부경찰은 3일 해상 추락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팽목리 진도항에서 동행인 아내와 18세, 16세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목포 모처에서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먹이고 진도항까지 차를 몰고 가 바다로 뛰어든 A씨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혼자만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제는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남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다음날까지 근처 숲 속에 숨어있다가 인근 수파에서 벌린 전화로 연락한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돌아왔다가 2일 밤

9시 1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 두절됐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등으로 위치 파악에 나섰다가 진형과 가족 등의 연락이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회로로 바다로 차량의 돌진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진도항 인근 해상에서 차량을 인양해 A씨 아내 및 두 아들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결혼·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 바꾼다

법령·생활 용어 47개 정비키로

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

책회의를 통해 정비 계획이 발표됐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가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돌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연합뉴스